

2023 제2차 정기이사회

회 의 록

「충남연구원」 2023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1 회의 개요

1. 일 시 : 2023. 12. 29.(금), 10:30~13:00

2. 장 소 : 연구원 4층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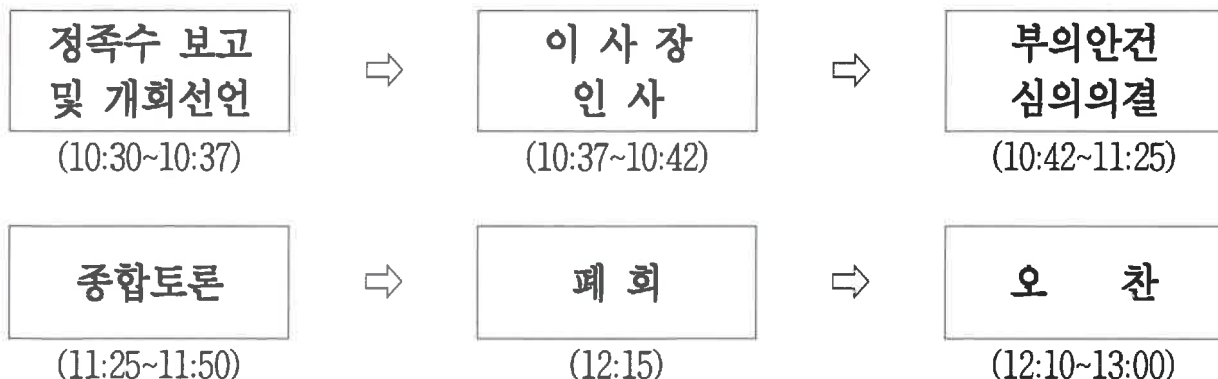
3. 참 석 : 총 13인(이사 11, 감사 2)

- 불 참(9명) : 이사장, 김영만 이사, 박종찬 이사, 송준호 이사,
정세은 이사, 지진호 이사, 홍성주 이사,
정연기 이사, 이해형 이사

4. 부의안건

- 제1항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 제2항 2024년 사업계획(안)
- 제3항 2024년 예산(안)
- 제4항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 제5항 용역사업규정 개정(안)
- 제6항 연구업무수행규정 개정(안)
- 제7항 예비비 사용승인(안)

5. 진행흐름



2 회 의 결 과

□ 간사 안내

- 안녕하세요.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오용준입니다.

오늘 이사장이신 김태흠 지사님께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충남연구원 정관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이사장께서 “김수민” 이사님을 ‘회의주재 이사’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의해 김수민 이사님께서 이사장을 대행해 이번 이사회를 주재하시게 되었습니다.

- “김수민” 이사님께서서는 이사장 좌석에 앉으시어 이사회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이사 이사장석으로 이동]

□ 개 회(간사)

[국민의례, 성원보고]

□ 개회선언(이사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2023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사장 인사

- 올해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늘이 평일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또 마침 이날을 정하셔서 이렇게 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네요. 어쨌든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었고 또 기쁨도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그러나 요즘 어떤 몇몇 학자들이 지금 얘기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이런 것의 태반이 내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떤 운에 의한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너무 기죽을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올해 운이 좀 없었으면 내년에는 더 큰 운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부의안건 심의에 앞서 먼저 회의록 기명이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수고해주실 두 분의 이사님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수고하신 이사님이 누구셨죠? 수고의 크기에 감사하면서 류주현 이사님, 임재영 이사님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 그러면 두 분 이사님께서는 회의록 정리에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우선 안건심의에 앞서 새로 오신 이사님들이 계십니다. 세 분 이사님을 새로 모시게 됐는데,

○ 신현웅 이사님, 순천향대 자연과학대 학장님이십니다.

이어서 오현환 이사님입니다.

○ 오늘 또 한 분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부의안건 심의의결

<의 장>

○ 다음은 간사가 오늘 이사회에서 심의할 부의안건을 보고하겠습니다.

<간 사>

○ 오늘 심의의결 하실 안건은

- 제1항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 제2항 2024년 사업계획(안)
- 제3항 2024년 예산(안)
- 제4항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 제5항 용역사업규정 개정(안)
- 제6항 연구업무수행규정 개정(안)
- 제7항 예비비 사용승인(안) 등

총 7건입니다.

<의 장>

○ 오늘 이사회 의결 안건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 제1항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 제2항 2024년 사업계획(안)
- 제3항 2024년 예산(안)
- 제4항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 제5항 용역사업규정 개정(안)
- 제6항 연구업무수행규정 개정안
- 제7항 예비비 사용 승인(안)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의된 안건을 유사 안건별로 묶어서
일괄 상정한 후에 심의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이사 전원>

○ 예.

<의 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부의된 안건을 유사안건별로 묶어서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이 안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히 들여다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실 이사님 안 계십니까? 류주현 이사님

<류주현 이사>

○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수탁용역 수주액은 줄었지만 소규모 과제는 건수는 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건당 수주액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 이유라든지 아니면 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저도 과제를 하다 보면 액수가 크든 적든 부담감은 똑같거든요.

○ 그래서 연구원의 연구용역에 피로감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간 사>

○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도에서 발생하는 정책수요 용역은 충남연구원에 최대한 부여해라” 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후에 실·국에서 사실 충남연구원에 일괄적으로 주는 방식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식의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과제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몇 개가 좀 더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 이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당 과제 수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피로도에 대해서는 내년에 수탁과제제도 활성화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 계시면 심의를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 장>

- 다음은 내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이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 제2항 2024년 사업계획(안)
 - 제3항 2024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 더 살펴보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연구원 조직표에 고문이라고 있습니다. 고문단이 지금 몇 분 계시는지, 어떤 기준에서 모시게 됐는지 그런 것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원 장>

- 실질적으로 저희 원에 고문을 모시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의 장>

- 현재는 고문이 안 계시지만 직제상으로는 편성이 돼 있군요?

<원 장>

- 예.

<의 장>

- 말씀하십시오.

<김황배 이사>

- 내년도 업무계획하고 예산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내용들은 검토해서 하고,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 첫 번째는 주요업무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어쨌든 학교에 있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업무계획을 짜면서 추진계획에서 도의회와 협력, 시·군 협력, 정책수요자 협력 이런 것을 통해서 계획을 짰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제가 의견을 드리면, 충청남도에는 대학이 22개가 있거든요. 대학에 뭐라 그럴까요, 산학협력단도 있고 연구처도 있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짤 때 정책 아젠다도 좋고 충남의 미래형 먹거리도 좋고, 대학교하고 좀 협력해서 새로운 과제라든지 아이디어를 좀 받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혹시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두 번째는 저는 오늘 우리 연구원하고 MOU를 맺기 위해서 왔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 SOC 분야 지원할 금액이 없거든요. 도비라든지 시비가 투자하기 어려운데, 여기도 공공투자 관리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와 어떤 사업 발굴 지원방안 이런 데 대한 기초연구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과제가 안 보여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면 어떨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배 이사〉

- 우리 김황배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교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당연한 것 같기는 하지만, 계속 이사회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사님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크든 작든 간에 각 영역에서

이사님들이 관심 있는 사항 내지는 그쪽의 의견을 좀 구하는 사항 이런 부분은 협력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 여기 이사님들이 또 개개인별로 활동하는 영역을 보면 충남연구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이사님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시고 또 역할이 주어져서 같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내가 좀 도와주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그런 의견을 듣거나 자문요청을 받은 게 없었거든요. 다른 이사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향후에 일하시다 보면 정신없고, 또 여기 연구원분들이 얼마나 바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혹시 그런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이사님들하고 협력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원장님이 이 연구원을 이끌어가는 데, 성과를 만드는 데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상당히 내실 있고 알차게 준비하려고 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원장님실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 충청남도가 천안과 아산을 제외하고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물론 충청남도도 그런 사실은 알고 있지만 오히려 연구원에서 충청남도의 인구감소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제안 해서 오히려 예산을,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 중앙정부도 그렇고 광역도도 그렇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각 지자체에도

그런 거 관련해서 연구를 한다고 한다면 예산을 좀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그런데 장황하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충청남도청이 있는 홍성과 예산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포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아주 인구가 현격하게 감소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예산은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내포신도시도 역대 지사님들이 공약한 대로 인구 30만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있는 홍성에 대학도 있다고는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있다가 다 그냥 수도권으로 나가서 놀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서 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교통 인프라가 현격하게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 그런데 대부분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나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뭘 투자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투자를 해야 인구가 늘든 시설이 들어오든 뭘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통 인프라 중에서 사람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트램’ 이라고 하는 그런 친환경 교통수단을 홍성과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으로도 활용하고 또 생활 편의를 확대하는, 프랑스 파리나 홍콩 등지에서 흔한 교통수단이잖아요.
- 그런 걸 한번 제안하는 걸 해서 공주나 보령이나 부여나 서천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 또 충남이 관광도 전국적으로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충청남도청에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을 좀 제안하면 어떨까. 큰 그림으로 보면 충청남도청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이라도

정주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무슨 연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좀 말이 길었는데, 반영이 좀 돼서 정책적으로 충청남도청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 사>

- 관련해서 이사님 말씀드리면, 행안부가 ‘인구감소 대응 특별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인구감소대응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법에 명시해놨고, 그 센터의 위치는 시·도 출연 연구원으로 뜻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늦으면 후년에는 인구감소대응지원센터 설치가 법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 그 전에 충남연구원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감소 대응 전략연구팀’을 신설해서 사전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체계를 지원하고 준비하겠습니다.
- 내포신도시 활성화나 정비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은 교수님 모시고 강의 한번 다시 듣고 하겠습니다.

<박정배 이사>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책적으로 연구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투자와 기반시설이 되는 것하고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연구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간 사>

- 알겠습니다.

<의 장>

- 또 없으십니까?

<오현환 이사>

- 제가 충남연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참석했으니까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첫 번째,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취지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 보면서 과제수가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과제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220개 과제가 되는 것 같고, 이 과제 중에 과학기술진흥본부나 이런 부분 과제도 많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기존 연구원의 과제일 것 같고, 그 연구원의 연구직수는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 아까 말했던 자유팀도 여러 개 운영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연구자들이 갖는 비율. 왜냐하면 각 과제는 과제별로 보고서를 다 써야 되고 관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과 연구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 대과제화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나 분야 간 협력이나, 또 하나는 도하과의 관계에서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방식일 거라고 보여져서 일단은 제가 생각

하기에는 전략과제 중심으로 대과제를 고민하시고, 그게 중장기 TFT에서 논의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 도정 지원하는 과제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해당 과랑 협의해서, 저희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은 직접 하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대과제로 해야지만 인건비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와고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 또 하나는 과학기술진흥본부 본부장님 채용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채용이 안 되고 있어서 연구인력 채용에 관련된 것을 계획에 넣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채용 전략들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진흥본부의 예산이 쪽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자체 R&D사업에 대한 관리, 제도 이런 부분 시스템을 설계하는 쪽도 많이 있고, 일부 지역은 자체 기관들도 가지고 있고 자체 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부 성과평가 관련된 체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전체적인 도내 R&D사업 관리하는 체계나 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향후에 좀 더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 장>

- 감사합니다.

<신현웅 이사>

- 관련해서 추가 질의 겸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제안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오 이사님께서 과학기술 관련해서 말씀 하셨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진흥본부에 대해서 여쭙까 합니다.
-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아마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처음 내년 예산, 그러니까 메타버스하고 소재 분야, 에너지 분야의 예산 배분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지.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따로 되어 있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짓수는 많고, 도에서도 용역과제가 80과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주로 급한 과제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과제관리기관이라고 얘기하면 과제 수에 대한 제한을 조금 하면 어떨까.
- 아까 피로도 말씀하셨듯이 피로도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단위별로 묶어서 여기에서 경상경비 빼고 사실 과제 운영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 배정에 대한 기준은 어떤가. 예산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과거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하고 부합을 했는지, 아니면 도에 대한 어떤 정책 기반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 그리고 중앙에서 바라봤을 때 제가 과학기술자문 R&D 예산을 다뤄보니까 사실은 기획을 할 때 미리 우리는 기본계획에 많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들이 저는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을 바라보는 쪽은 부처에 돼 있는 5개년 계획이 됐든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것들로 따라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고민해서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소재 쪽에 주로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설정을 잘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 단기적으로 중앙을 쳐다보고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 제가 가끔씩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부처의 기본계획을 빨리빨리 입수하는지.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우리한테 반영이 되는 것에 대한 중앙, 그다음에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룹템에 대한 기획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가 추진하고 있는 학술용역 연구에 대한 것들하고 충남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하고 많이 부합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준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 장>

- 감사합니다. 혹시 임 이사님, 내부에 계시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임재영 이사>

- 오늘 여러 이사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주시는데 원장님께서 잘 대답을 하실 건데, 지금 내부적으로도 원장님 이하 간부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천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 장>

- 예, 원장님 말씀하시죠

<원 장>

- 그러면 앞에 이사님들 말씀하신 것까지 같이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사님들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사회 때만 이렇게 모셔서 우리 이사님들이 안건을 처리하는 역할에 국한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여러 형태의 어떤 연구 관련 과제에 이사님들이 참여하고 자문을 구하고 하는 노력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아까 내포지역 말씀해 주셨는데, 내포 관련해서는 내포신도시의 어떤 확장이나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은 최우선순위로 연구과제가 여러 가지로 접근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교통 인프라도 아마 수년 전부터 예산하고 흥성이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순환버스도 만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서 내포신도시가 토지계획상으로 입지가 완성이 되어야 되고 그로 인한 세부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 계획도 다듬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서해안 복선화, 삼교역 설치해서 KTX 직결하는 것, 그리고 천안에서 내포를 거쳐서 하는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인프라 계획이 구상 중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내포신도시의 교통 인프라를 진단하는 과제도 한번 수행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김황배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대학과의 협력, 이게 의회와 시민단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과의 협력은 정말 앞으로 저희가 같이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파트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진흥본부는 진흥원 시절부터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해 왔고 앞으로 우리 라이즈센터도 각 대학과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만큼 앞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강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 민간투자에 관련한 그 부분이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투자적격성 검토를 해주는 기관으로 공공 분야에만 지금 국한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민간투자제안서도 검토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과제 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진들도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제가 이사님들께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과제평가의 어떤 기준이 정량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는 큰 과제뿐만 아니라 좀 짧은 시기에 해내야 하는 과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과제 수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 결과물의 정책 활용도 그리고 질적 제고와 병행해서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아까 과학기술진흥본부에 예산 배정의 어떤 기준이 있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 그러니까 정책연구사업이라든지 기존에 국방혁신포럼이라든지 연구지원단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 배정 외에 사업 단위의 예산은 아마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배정된 예산과 그리고 도의 매칭사업비로 우선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말씀 주신 대로 중앙정부의 기본 계획에 우리 과학기술진흥본부의 업무방향이 맞춰져 있느냐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과학기술진흥본부가 통합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충청남도의 과학기술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또 기존의 산업 인프라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수립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가운데서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에서는 그게 있을 텐데, 과학기술의 어떤 역량이 충청남도에 많이 형성되지 못하여 한계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조금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 그리고 도 내에 R&D사업 설계 이런 것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R&D사업을 기획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하는 게 있고 대학의 어떤 R&D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R&D사업을 공모해서 개발사업비를 지원해주고 같이 R&D사업을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 장〉

-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 장>

- 제가 원장이지만 이사의 지위로 하나 좀 제안사항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들어오기 전에 봐서요. 35페이지 예산총칙이 도의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서 좀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 집행에 우리 구성원들이 숙지하고 지켜야 할 부분인데 용어의 사용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자고 우리 실무진에게 이야기를 드렸고 그 취지를 설명드리면,
- 2번과 3번인데요. 예산 전용을 할 때는 과거에는 단위사업이나 세부 사업 간 이동에 있어서는 원장의 전결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도의 승인을 받아라 하는 지침이 온 게 있습니다. 2번항입니다. “단위사업 간 전용은 원장이 결정하고 충청남도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통해 집행한다.” 하는 이 부분이 새롭게 들어가게 된 부분인데요. 3번에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혹은 세부사항 내 비목간 변경 사용의 경우 원장 결정으로 집행한다.” 고 돼 있는데, 3번에 ‘비목 간 변경 사용의 경우에도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예산의 과목구조는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중에 목그룹이라는 것이 있는데, 목그룹을 변경할 때 원장의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 중에 목그룹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목그룹 내에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구분해야 합니다.

도의 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그래서 목그룹의 변경이 있으면 이게 전용에 해당해서 2번항처럼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목그룹 내 이동일 경우에는 원장이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안을 제안 드리고요. 이럴 경우에 사실은 하부구조, 단위와 세부사업의 경우에 도의 승인을 받는데, 상위 부분, 그러니까 예산의 부문, 정책 간 이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는 이게 약간 과목구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1번항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도의 승인 없이는 하기가 어려워서 1번항은 삭제하는 결로 해서 다시 수정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사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 장>

-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짧게 간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환 이사>

- 나중에 연구용역으로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다른 쪽에 수탁을 주게 되면 그럴 때 비목 간의 변경도 똑같이 이런 승인사항은 아니겠죠? 이거는 일반회계에 대한 원에 대한 승인사항이죠?

<원 장>

- 연구용역의 경우에도 수탁과제의 경우에도 일반회계의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오현환 이사>

- 그러면 과학기술진흥법하고 배치되는 경우가 생겨서.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상위법이 과학기술진흥법인데 원에서 이 규정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 수행기관에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그건 조금 배치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원 장>

-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행기관에서 변경하는 것은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내에 목그룹 내의 변경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나 중앙정부에서 다 같이 승인하고 있는 같은 연결고리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의 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저도 아주 간단한 거예요. 46페이지에 지출예산 총괄에서 고객센터 부분 9,80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네요. 고객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 사>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하고 정책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의 장>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이사 전원>

- 예.

<의 장>

- 더 이상 질의할 이사님이 안 계시면 심의를 마치고, 연구원에서 제출한 대로 수정된 내용을 첨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사 전원>

- 예.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사업계획(안)>과 <제3항 2024년 예산(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 그리고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 장>

- 다음은 규정개정(안)으로 의사일정
 - 제4항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 제5항 용역사업규정 개정(안)
 - 제6항 연구업무수행규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3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감사합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영 이사>

- 한 말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2023년 상반기에 경남
모 소방관이 임용자격이 미달되는데 실질적으로 5년 근무인데 3년
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임용됐어요. 그런데 그게 한 10년이 넘는 시점에서
들어왔고 면직이 됐는데, 이 부분 때문에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었는데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 60쪽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징계 시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과 이 내용이 상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 장>

-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이사님들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 장>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영 이사님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채용비리나 이런 것은 좀 무겁게 다루어야 된다는 게 이번에 개정 취지이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한 20년 전이나, 지금은 굉장히 채용제도가 엄격해져서 쉽게 알음알음으로 채용되지 못하도록 여러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 그런데 20년 전이나 아주 오래전에 투명하지 못한 채용제도로 인한 그런 채용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법률 체계나 이런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어떤 제도가 투명하고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다만 보통은 징계나 법률적으로 소멸시효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당연히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채용과 관련해서는 충남연구원도 하여튼 어디에 내놔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 장>

- 대법원 판례 말씀을 하셨는데,

<임재영 이사>

- 제가 드린 말씀은 원장님께서 두 번째 미래지향적인 얘기 하시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그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충돌의 여지를 자꾸 남겨두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 아주 지난 2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들어오기 전인데요. 그 아주 묵은 부분들을 지금 꺼내서 그걸 가지고 상처를 다시 일으키자는 게 아니라 이 조항 때문에 나중에 그 문제가 다시 분란의 씨앗으로 발생할 부분들이 있는 표현 같은 것들은 미리 조절해둘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원장님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투명한 과정을 거쳐 오는데 이런 부분 강화하시겠다는 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 장>

-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 내용이죠?

<임재영 이사>

- 69쪽에 보시게 되면 어떤 특정 ‘횡령, 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징계시효 5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게 어떤 절차적인 분야,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취지는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따라가면 되고, 이 부분 가지고 또 재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

<원 장>

- 하승수 감사님께서,

<하승수 감사>

-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징계시효를 5년으로 하는 것이 또 다른 혼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임재영 이사>

-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은 원장님께서 뒷부분에 말씀을 잘하셨고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가 이렇다 할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 갖고서 재론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있는 문항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하승수 감사>

-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임용요건, 채용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 채용된 경우는 이전 징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채용이나 임용을 취소하는 문제라서요. 여기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징계 관련된 조항들은 근무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징계를 하는 것이고, 애당초 임용이나 채용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임용 취소나 채용 취소 같은 것들을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법원 판결도 아마 임용취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문제라서 그렇게 걱정하지는, 오늘 개정하는 것 하고는 별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 장>

-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문에 부친다고 하면 그건 아예 없는 것으로 치는 게 아닌가. 여기 경고를 또 넣어놨어요. 경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오현환 이사>

-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징계가 요구됐는데 견책의 사유에 해당되지만 장관 등 표창으로 감경됐을 경우에는 감경이 경고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불문경고’가 되고, ‘불문경고’가 되면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관리 하도록 공무원은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불이익을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이런 가지고 있는 규정들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 장>

- 그러니까 징계가 파면/해임/정직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이 견책인데, 견책을 주기에 어떤 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앞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징계의 불이익이 없는 상태로 ‘불문경고’라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징계 회부가 돼서 불문경고를 받았다 해서 죄의 양형은 없지만은 불이익도 없었던 겁니다. 저희 연구원의 지침상으로 그런데 훈계나 주의는 원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 줄 수 있는 건데, 그 경우에는 당연히 감점을 주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불문을 받은 사람이 훈계를 받은 사람보다 더 이익을 보는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문경고도 어느 정도 검증해서 감경을 주는 것으로 보완하게 된 것입니다.

<의 장>

-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오현환 이사>

- 병가와 관련해서 12일에서 6일로 된 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는 불이익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연가 제외하는 걸 6일 줄인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직원들의 불이익 변경사항으로 동의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신 거죠?

<원 장>

- 우리 과학기술 분야에 전문이사님으로 모셨는데 선임연구위원님이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그게 이익 변경, 불이익 변경을 논란이 있는 여지가 있어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현환 이사>

- 동의를 받고 있습니까?

<원 장>

-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의 장>

- 임 이사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죠?

<임재영 이사>

○ 예.

<의 장>

○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현환 이사>

○ 이 안건과 상관없이 제가 규정을 봤는데 정년 관련된 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정년에 관련된 조항 한번 보시면 관리직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연구직과 관리직이 다 구분돼서 기술되어 있는데 왜 50조 정년은 관리직만 기술되어 있고 연구직에 대해서는 정년이 기술돼 있지 않아서.

<원 장>

○ 1항에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했고, 진짜 연구직이라는 말이 없네요. 인사복지팀장님, 이거 어떻게 된 연유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왜 관리직만 살아있고 없어졌는지?

<경영관리단장>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들, 경영관리단장입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 저희가 다 인지했었는데, 이번에는 급한 것만 원포인트로 개정을 하고 향후에 전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면 개정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 장>

- 그러면 수정의결을 하면 안 되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나요?

<간 사>

- 사전에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원 장>

- 사전절차, 알겠습니다.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 말씀하시죠

<김황배 이사>

-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업무수행규정 개정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앞에 보면 과제들을 단기과제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구책임자 중에서 이상신 박사라는 분이 연구과제가 18개나 돼요. 같은 달에 끝나는 게 5개 이렇게 있는데, 연구업무수행규정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보고서를 그렇게 다 잘 쓸 수 있을까, 인쇄본까지 제출할 수 있을까. 탑재만 하면 기본적으로는 끝나고 인쇄본은 통상적으로, 기간과 동시에 인쇄본까지 최종적으로 다 제출해야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지.

<간 사>

- 저희가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연구사업이 종료될 때는 과제보고서가 탑재가 되어야 종료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윤독이나 수정과정의 절차를 훨씬 초과해서 두 달, 세 달 정도 늘어지는 일부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관리시스템에 올려서 종료 절차를 밟고 충분한 검토와 윤독 과정을 거쳐서 도 정책부서로 제출하는 것을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황배 이사>

- 원래 안 고쳐도 될 거를 저는 고쳤다고 생각이 돼서 융통성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박사가 연구를 18개를 하는데 그게 몰렸을 때 너무 빠듯하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 장>

-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류주현 이사>

- 추가로 특히 또 ‘지체 없이’ 라는 표현이 되게 애매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간 사〉

- 기간을 ‘2주 이내로’ 라고 하면 또 그게 조건이 될 수 있어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지체 없이’ 라는 단어의 어감은 좋지 않은데 마땅히 대체할 만한 용어를 찾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규정 문구로 답았다는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원 장〉

- 저희 내부 사정이기는 한데, 과제라는 것이 아까 이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지 않고 계속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너무 일반화돼서, 저희는 회계연도라는 개념이 있고 과제 종료기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해를 초과하여 다음 연도 상반기가 돼도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도,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자꾸 수정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합당한 이유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과제가 몰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평가를 해야 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럴 때 과제가 또 탑재가 안 되고 이러면 평가기간이 또 뒤로 밀리는 이런 등등이 있어서 조금 경각심을 우리 구성원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과제관리시스템에 최종본이라고 탑재가 됐다고 해서 수정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쇄 결과물도 경인쇄로 하기 때문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 사〉

- 부연 드리면, 기존에는 사업기간, 연구기간의 종료 전까지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걸 종료한 후에 최대한 빨리 올려라 하는 쪽으로 사실은 다소 완화된 표현이라고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과제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성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 김진용 공주시 미래전략실장〉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님, 우리가 ‘지체 없이’ 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누구나 인식하는 게 며칠을 얘기하죠?

〈하승수 감사〉

- 이게 여러 가지 고심해서 나온 문구 같은데, 그 앞에 보면 또 ‘원칙적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애매한 면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 운영의 묘를 아마 살리시는 수밖에 없지 않나. ‘지체 없이’ 도 며칠이라는 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의 장〉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 계시면 심의를 마치고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사 전원>

- 예.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제5항 용역사업규정 개정(안)>, <제6항 연구업무수행규정 개정(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 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 계시면 심의를 마치고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이사 전원>

○ 예.

<의 장>

○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토의

<의 장>

○ 다음은 우리 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놓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 편히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정배 이사>

○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들어오면서 연구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산뜻해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제가 칭찬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오늘
원장님 보자마자 “원장님, 잠시 안 보는 사이에 연구원이 많이
산뜻하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칭찬했더니
아주 남우세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연구원들이나
여기 직원분들의 사기라든지 더 높은 실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좀 더 진행을
해서 다음에 또 이사회 왔는데 ‘아유, 또 왜 이렇게 변했나요?’
외형적인 게 내실을 다 보충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환경개선에 좀 더 힘썼으면 좋겠고.

- 그다음에 우스갯소리로, 성과가 좋은데 직원들은 성과급을 다 받는데
왜 이사들은 성과급 없습니까? 이거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꼭 성과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났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다른 지역에 투어를
하든 뭐하든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환경을 좀 바꿔보자 하는 그런
의견도 좀 드렸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이하 여기 연구원이나 직원분들도
그렇지만 또 이사님들도 일정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 마지막 하나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충남연구원에서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송가인 콘서트를 광주에서 하는데 무대시설이 무너져서 이게 또 일파만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어떤 매뉴얼 제시 같은 경우도 충남연구원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지지체들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장>

○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 장>

○ 예.

<원 장>

○ 이사님 주신 안전 문제는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있습니다만 실증적인 어떤 대안까지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과학기술 진흥본부가 통합되면서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국비공모사업 중에 하나 선정된 것이 ‘메타버스 기반 다중집합장소에 안전대책마련’ 이런 사업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시예 예를 들면 백제 문화제 같이 갑자기 사람이 운집하는 이런 행사에 계량적 어떤 요인들을 개발해서 장치를 통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빠르게 관계기관에 통보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 이사님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처우라기보다는 기분을 좀 좋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연구 과정에 자문 구하고 참여하는 그런 활동들을 특히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하나 잊어버렸는데, 인구소멸 저발전 지역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수행하는 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간 한 1,100억 정도 해서 그동안에는 9개 시·군에 배분을 했는데 홍성이 항상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상욱 박사님이라고 균형발전지표를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 가지 지표의 불합리성과 이런 걸 검토한 결과 홍성이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만들어서 이번에 도에 보고를 했고 이게 2기사업 2025년도부터는 홍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정배 이사〉

- 참고로 도지사님이 요새 문화도시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아지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충주, 충청남도에서는 홍성, 세종 이렇게 세 곳이 문화도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공주하고 천안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같이 협력을 해서 성과 창출해서 문화도시를 했더니 정말 괜찮다 하는 것을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남연구원이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데하고는 같이 협력해서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산이 풍족한 건 아니지만 그런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은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연구 질이 좋으니까 한번 지자체하고 의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 장>

-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지난번 이사회 때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시간계획 속에 앞선 이사회에서 어떤 내용의 논의가 있었고 어떤 건의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잊어버렸어요 있습니까?

<원 장>

- 보고해 주시죠, 실장님.

<간 사>

- 전차 이사회 때 자문의견 말고 주문의견 주신 부분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첫째는 과학기술진흥본부 통합에 따라서 행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공간을 확보하라는 주문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정책사업지원단 행정지원팀에 본원의 정규직 인력 행정 2명을 관리직으로 파견해서 재무와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과학기술진흥본부와 내포신도시에 분산해서 입지하고 있었던 정책사업지원단의 부설센터가 공동으로 신도시 대한전문건설회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연구환경을 개선해서 입주하였습니다.

- 충남라이즈센터와 과학기술진흥본부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 그리고 저희 현재 조직이 실·본부·센터의 위계가 조금 맞도록 조직개편에 검토 주문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향후에 조직혁신위원회를 만든 후에 여건이 도래하면 이런 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기능 보강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빅데이터센터나 문화관광 관련 연구기능의 기구를 만들어라라는 주문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기구까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만들지 못했고, 23년에 빅데이터와 관광 박사급 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연구 수요가 확대할 때는 추가적인 인력 충원을 검토하겠습니다.
- 갈등관리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2018년에 공공갈등연구팀을 본원으로 흡수해서 연구기능을 강화한 이후에 미군기지 평택 주변지역 지원, 공군 대천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 다양한 연구와 갈등관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 장〉

-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미처 못 봤군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시간계획 속에 부의안건 앞서서 이거를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계획에 넣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간이 조금 지났습시다마는 그래도 하실 말씀이 연말이니까 있으실 것 같은데, 주로 좀 덕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 - 김진용 공주시 미래전략실장>

- 공주시 최원철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충남연구원이 지정학적으로 공주시와 가까워서 올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역소멸 대응이라든가 워크숍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지역과 같이 상생하는 충남연구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건강과 내년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 장>

-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김황배 이사>

- 이사회를 자주는 못 오지만 작년에 왔을 때보다 이사회 하는 분위기도 좋고 또 연구원들, 상근하는 임원들 얼굴빛을 봐도 굉장히 밝아 보여서 너무 좋고요. 올해 또 우수기관 ‘가 등급’ 받으셔서,

<원 장>

- 이사님 덕분입니다.

<김황배 이사>

- 축하드리고요. 또 계속 이렇게 충남연구원이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 장>

- 감사합니다. 류 이사님.

<류주현 이사>

- 처음 딱 왔을 때 이렇게 직전 이사회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어요. 항상 보면 저의 의견이 반영이 되나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행 절차도 알 수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나아가는. ‘가 등급’에서 더 올라갈 수가 있나요?

<원 장>

- 유지가 더 힘듭니다, 사실은.

<류주현 이사>

- 그래서 내년에 제 마음속 ‘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의 장>

- 고맙습니다.

<박정배 이사>

- 올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 등급’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유지 발전하면서 성과를 만들어가는 우리 원장님의 어떤 리더십에 응원을 보내고, 함께하는 직원분들이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도, 연구원님들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냅니다. 함께해서 너무 기쁜 이사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주현 이사>

- 정말 박수를 한번 보낼까요?

<이정일 이사>

- 변화가 좀 있었고 하여튼 안정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사님들이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고요.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영역이나 이쪽 안에서도 늘 아젠다라든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와중에 충남 연구원에 부담스럽고 뭔가 논의할 수 있는 의제를 좀 던질 만한 분위기가 됐는데, 얼마 남지 않았고 이사 기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특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웅 이사〉

- 신입 이사로 와서 또 갑자기 인사 덕담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오자마자 또 여러 소리를 해서 또 미움이나 안 받을까 걱정이지만 사실 충남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이즈센터에 과학기술진흥본부에 이제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들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더 의제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가 등급’도 받으시고, 또 들어올 때 분위기도 봤겠지만 제가 아까 사실 인사관리규정에서 왜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는 없고 계속 징계에 대한 얘기만 하는가. 과제 수는 많다는데 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얘기를 하지 않는가. 그거는 한번 원장님이 더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그러면 특급으로 더 잘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좀 더 고민하고 아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현환 이사〉

-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 지금 충남연구원을 보면서 진짜 영역이 엄청 넓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 연구원에서 진행된다는 거에 놀랐고, 전문가분들이 같이 협업을 많이 하면 시너지도 상당히 많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운영하시기도 많이 힘드시겠고 조율하기도 힘드시겠더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사로 이사가 한마디 하면 실무자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정제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다음에 이사회 오기 전에는 실무자분하고 미리 상의를 좀 해서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많은 교류를 통해서 서로 교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영 이사>

- 과학기술진흥 쪽에 신임 이사님 두 분 오셔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원장님 배려로 1층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간으로 확충을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메타버스 사업 나왔는데요. 과학기술진흥본부 연구인력하고 저희 센터 인력하고 협력해서 차근차근 국비사업을 따오는 과정을 하고 있고, 이게 다 연구원장님께서 신경 써주신 덕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계속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 거니까 봐주십사라고 부탁드립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승수 감사>

- 한 해 고생들 너무 많으셨고, 어쨌든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좋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 송은영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주무관>

- 이사님들이 이렇게 도정을 위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정책 조언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해 동안 연구원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저희도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한 해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 장>

- 감사합니다. 제가 이사장의 직권을 활용해서 이쪽에 배석하신 분하고 저쪽에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이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두 분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얘기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원 장>

- 아무래도 우리 라이즈센터장이 새로 임명돼 와서 말씀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용배 충남라이즈센터장>

-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승용배 라이즈센터장입니다. 라이즈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지금 굉장히 현안이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게 라이즈 2024년도 충남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제출하는 일이 큰 과제고요. 그 과정에서 여기 교수님들도 계신데, 도내 대학 보직자들하고 간담회를 아마 수차례, 1년 내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뵈는 것 같고요. 또 이사회에서 고견을 주시면 기본계획에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또 이어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함께 이걸 어떻게 공모사업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실행계획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견을 주시면 참고하고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 장>

-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경영관리단장>

-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경영관리단장입니다. 저희가 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사항들은 이사회 의결을 꼭 거쳐야 합니다. 거치는데, 지금 이사님들이 스무 분이 계시는데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결정족수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사님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실 때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꼭 좀 참석해서 우리 연구원 돌아가는 사정도 좀 파악하시고 이사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 장>

-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그러면 우리 원장님 말씀 들겠습니다.

<원 장>

○ 제가 아까 발언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우리 충남연구원이 이사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나날이 안정화되고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폐 회

<의 장>

○ 올 한 해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축의 박수 크게 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의견을 주시고 여러 가지 참여를 해주신 여러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 충남연구원을 이끌어 오신 우리 원장님 그리고 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연구원의 구성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실 한 해가 끝나면 늘 우리가 상투적으로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어느 한 해인들 다사다난하지 않은 한 해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어떤 시인처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고,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도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어떤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모두가 내 능력이고 내 노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태반이 그냥 우리 사회가 주어진 것, 또 거기에 의한 어떤 이런 것들의 조합이라는 생각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셨으면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올해 좋았으면 내년에도 더 좋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의 「2023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회의록 작성 날인

- 충남연구원 2023 제2차 정기이사회(2023. 12. 29.)의 진행 및 의결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서명이사, 감사가 각각 기명날인하여 이를 증명함.

의 장 김 수 민 (인)

이 사 류 주 현 (인)

이 사 임 재 영 (인)

감 사 하 승 수 (인)

감 사 박 정 주 (인)